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 즉 자기 장소를 안다고 했는데 소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충성의 모습이 그룹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에스겔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겔 1:10 볼 때 생물의 모습이 네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의 모습이며, 이 소의 모습이 곧 그룹의 모습인 것을 겔 10:14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 3:24).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십니다 (삼상 4:4). 또 그 분은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의 날개로 높이 뜨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상 4:4, 시 18:10).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 (ruah)로서 바람, 영, 숨을 의미합니다 (wind, spirit, breath).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고전 4:2).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느 9:8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라고 시 101:6에 나와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눅 16:10-12).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세요!

마 21:5 볼 때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 11:29). 사울이 아버지의 일어버린 양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라헬의 묘에서 가까운 쉼사에서 찾았다고 삼상 10:2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사(zelzah)는 정오(noon, midday)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없어야 겸손해집니다! 그림자가 없는 시간, 빛만 있는 시간은 예수님입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고 요 11:8-10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어둠을 완전히 없애주는 주님의 빛이십니다 (요 8:12, 1:1-4). 죽은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그 어떤 어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어둠이 있는 자가 어둠에 처한 자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끼리는 한 그림이며, 한 무늬이며 한 색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충성의 빛이 있었고 그 겸손의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창 1:3-5).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겸손한 자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으면 겸손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함께 해주시며 (사 57:15), 붙들어 주시며 (시 147:6),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잠 3:34),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시 10:17),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 11:2).

소와 나귀는 충성과 겸손을 의미한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진 자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깨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인간은 봐야 믿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요 2:11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보고 믿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선약나무도 보고 따먹은 것입니다 (창 3:6).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선악입니다.

믿음으로만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기둥이었습니다 (출 40:38). 사 61:3 볼 때 누가 의의 나무로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고 시 92:12-15에 나와있습니까? 누가 기쁨의 동산(garden of delight)으로 사 5:7에는 나와 있습니까?

깨달아야 사람이며,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선악입니다! 왜냐하면 참 깨달음에는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 2:17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므로 지식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전 8:1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아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약 4:17).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롬 14:8).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깨달음은 아버지의 영 곧 살려주시는 영으로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새 힘으로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시고 겸손하셔서 보내신 일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40:31)!